

다산포럼

송재소



중국 청나라의 문인 오교(吳喬)는 산문과 시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산문과 시가 나타내고자 하는 뜻(意)을 쌀에 비유한다면, “산문은 쌀로 밥을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시는 쌀로 술을 빚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밥은 쌀의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술은 쌀의 형태와 성질이 완전히 변한다.”고 했다. 참으로 절묘한 비유이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술을 마시면 취한다. 밥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술은 마시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찌 밥만 오 살 수 있겠나. 때로는 얼큰한 취향(醉鄉)의 경기가 밥보다 더 절실한 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쓰고 시를 읽는 것이 아닐까? 시는 우리를 취하게 하기 때문이다.

술은 인간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시의 역사도 술의 역사만큼 유구하다. 술이 있는 곳에 늘 시가 있었다. 술의 양조법과

종류가 달라도 술은 술이듯이, 시의 형태와 기법이 아무리 다양해도 시는 시이다. 이렇게 시와 술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인간의 다양한 벗으로 남아있다.

산문은 밤이요 시는 술이다

이러한 시가 지금 바야흐로 전성시대를 맞이한 느낌이 든다. 중앙일보가 매일 한 편씩 소개하는 ‘시가 있는 아침’ 코너가 1998년 1월에 연재를 시작한 이래 올해로 11년째를 맞아 곧 3천여 편을 돌파할 예정이다. 조선일보가 2008년 1월부터 과격적인 지면을 할애하여 연재한 ‘현대시 100년, 시인 100명이 추천한 애송시 100편’이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내었다. 또한, 이 100편을 묶어 출판한 시집 ‘어는 가슴엔들 시가 꽃피지 않으랴’가

2008년 하반기에만 5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박경리의 유고시집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흥분하다’는 이미 10만 부를 돌파했고, 신경림의 ‘낙타’, 안도현의 ‘간절하게 참 철없이’도 1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한다.

서울의 송파구에서는 이미 올해 3월에 ‘시가 꽃피는 봄날’이란 주제로 시 낭독회를 개최했고, 강남구에서도 4월 한 달간 ‘시 따라 희망 찾아’를 주제로 시 축제 행사를 연다고 한다. 또한, 법무부 교정본부

나라 가슴에 호소하는 것이 시이다. 이제야 시를 술에 비유한 이유를 알 것 같다. 술을 가슴으로 마시지 머리로 마시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시인들의 작품에선 잘 익은 술 냄새가 난다. 정희성의 시에서는 담백한 백세주 맛이 나다가도 30년 된 벨런타인의 격조 높은 향기가 난다. 신경림의 시를 읽으면 중국의 명주(淸酒)에 취한 듯하다. 거역할 수 없는 분주의 그 맛과 향기, 고은의 시에는 그가 즐겨 마시는 소주 맛이 배어있고 이시영의 시는 독하지 않으면서 은은히 취하는 일본 술 사케와 같다. 그런가 하면 김혜순의 시는 깔끔한 대갈과 같은 맛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난해(難解)한 술 소흥주(紹興酒) 같기도 하다. 처음 마시는 사람에게 그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지만 미시면 마실수록 그 맛이 흘러버리는 술이 소흥주이다.

이 지구상에 인간이 살아가는 한 시인들은 아름다운 술을 빚는 마음으로 시를 쓸 것이고, 사람들은 아름다운 술을 마시는 마음으로 시를 읽을 것이다.

〈성균관대 교수·다산연구소 제6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정부, 광주·전남 ‘호남’ 해도 너무한다

이명박 정부의 ‘호남 확대’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지역의 운명을 좌우할 대형 현안사업들이 정부의 무관심과 제동에 막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F1(포틀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지원법 제정,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J프로젝트), 2012 여수엑스포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역 현안사업들이 줄지어 ‘찬밥’이 아니라 해도 너무하다.

우선 전남의 최대 현안인 F1 지원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졸기차게 반대를 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성과 경제효과 등을 운운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여수 엑스포도 잔뜩 막구름이 낀 상태다. 조직위원장 부재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여태 감감무소식이다. 각종 현안들을 해결하려면 조직위원장 선임이 시급한 데도 정부는 ‘기다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호남의 미래가 걸려있는 ‘5+2’ 광역경제권의 재정절도 물 건너갔다. ‘영·호남 산업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역민의 주장을 외면한 채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5+2 광역경제권 설정을 골자로 한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게다가 농수산식품부는 J프로젝트 예정지에 대형 유리온실 건설을 강행해 지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정부 부처들이 작정하 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같이 이럴 수 있던 말인가.

정부는 출범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균형발전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호남은 아예 안중에 없는 듯하다. 투자자까지 결정된 이들 현안사업이 표류할 경우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엄청난 후유증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금이라도 이를 프로젝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호남 확대에 관한 민심을 달래는 길이다.

‘벼랑 끝’ 내몰린 지역 제조업 어찌할 건가

광주·전남 제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최근 150개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업체의 64.0%가 지난해 말보다 경영여건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제조업체의 3분의 2가량이 경영상태가 좋아지는 커녕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53.6%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매출이 줄어 지역경기가 최악의 국면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매출 회복시기도 75%가 올 3분기 이후로 전망하고 있어 지역기업들의 불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위기는 한국은행의 통계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지난 1분기 제조업의 성장률은 -13.5%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제조업 실질 생산액도 5년 전 수준에 그쳤다.

최근 주가와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꿈틀거리면서 성급한 경기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에서나 나올 수 있는 전망이지 지방의 사정은 전혀 판판이다. 지방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경기는 고사직전이고, 수출과 설비투자·소비 등 주요 지표들은 여전히 바닥에서 헤어나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실물 부문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경제가 처한 실상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지역 제조업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예 지방에서는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작금의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경제부터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지역 기업들도 뼈를 깎는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만이 살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조선시대 사극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순간으로 꼽히는 추국(推鞠) 장면일 것이다. 의금부에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는 사건이 등장한다. 주로 반역을 꾀했거나 인륜을 거스른 사람들이 문초를 받았다.

의금부가 처리하는 사건은 대부분 목숨이 오갈 정도로 중대한 내용들이었다. 따라서 의금부에 불합격하면 제 아무리 심지가 굳은 이라도 사살을 실토하지 않고는 배겨나기 어려웠다. 때로는 극심한 고문까지 이어졌으니 의리를 지키려다 절명하는 상황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회유에 쉽사리 무너지는 케이스도 존재했음을 드러마를 통해 알 수 있다.

의금부에서는 왕이 직접 혐의사실을 캐물기도 했다. 그런 연유로 의금부는 조선시대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산천초목을 떨게 만든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했다.

의금부는 1414년(태종 14) 의윤순금사(義勇巡禁司)가 개편되면서 출범했다. 의금부(義禁府)란 이름은 사(義)와 금(禁)의 합성어인 ‘의금부’로, 사(義)는 의(義)를 뜻하고 금(禁)은 금(禁)을 뜻한다. 즉 ‘의금부’는 ‘의(義)를 지키고 금(禁)을 지키는 곳’이라는 뜻이다.

의금부에서는 왕이 직접 혐의사실을 캐물기도 했다. 그런 연유로 의금부는 조선시대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산천초목을 떨게 만든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했다. 의금부는 1414년(태종 14) 의윤순금사(義勇巡禁司)가 개편되면서 출범했다. 의금부(義禁府)란 이름은 사(義)와 금(禁)의 합성어인 ‘의금부’로, 사(義)는 의(義)를 뜻하고 금(禁)은 금(禁)을 뜻한다. 즉 ‘의금부’는 ‘의(義)를 지키고 금(禁)을 지키는 곳’이라는 뜻이다.

왕족의 범죄나, 국사범(國事犯)·반역 등의 대옥(大獄), 자손의 부조(父祖)에 대한 죄나 노비의 주인에 대한 죄 등을 처리했다.

요즘의 수사기관으로 의금부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다. 중수부는 지금까지 거물급 정치인, 재벌회장 등을 상대했다.

오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도 중수부에 출석해야 한다. 박원차 대공실업 회장으로부터 흘러나온 돈의 성격과 범죄 혐의 여부에 대한 고강도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때 ‘후원자’로서 대통령의 지근에 있던 박연차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대립 여부도 세간의 관심사다. 돈이 오간 경위를 놓고 서로 말이 조금씩 달라 검찰은 필요하면 두 사람을 대면시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이 ‘현대판 의금부’에서 끝까지 의리를 지킬 것인지, 서로의 안위만을 내세울 것인지 궁금하다. /박치영 정치부장 unipark@

의금부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이석형



남도 땅 여수에서 2012년 5월 12일부터 90일간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린다.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이벤트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여수 엑스포는 광양만권에 국한된 지역 행사라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참으로 의미 있는 행사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근자열원자래’(近者悅 遠者來)이다. 준비하는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야 멀리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말이다. 바꿔 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즐거워야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뜻

비해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개최 후에 엑스포 관련 시설물의 활용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독창성에 성패가 달려 있다.

합평은 천연자원과 산업자원, 관광자원이 빈약한 3無의 고장이었다. 모든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10회에 걸친 나비축제와 지난해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모든 걸정체였다. 물론 성공의 으뜸 요인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였지만 군민과 공직자,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2012 여수 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며

이다. 近者悅이 遠者來를 기대할 수 없다는 반증이다.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내건 여수 엑스포는 88올림픽, 93대 전박람회, 2002월드컵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4번째의 초 국제이벤트이다. 이제 준비기간이 3년 남짓 남았다. 그렇다면, 성공을 향한 전략은 뭘까?

첫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식이다. 또 성공의 요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민의식이다. 다른 지역의 시·도·군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입소문을 내야 한다. 남도인 모두가 엑스포의 주인이 되어 홍보대사가 되어야 한다.

둘째, 여수만의 특색있는 디자인이다. 아쿠아리움 등 관련 시설이 들어서고 교통과 숙박시설 등 SOC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모든 엑스포 시설은 관에 박힌 시설보다는 독창적인 마인드로 설계되어야 한다. 여수의 특색을 살린 독특한 시설로 디자인하고 도시 전체를 아름답게 가꿔야 한다. 도이론바 블루오션 전략이다.

셋째,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행사장 내 각종 시설물 설치, 주민의식으로 무장된 자원봉사자 육성 등 세심하게 준비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우리의 사례를 들어 보자. 88서울 올림픽 개막식 때 여섯 살 소년의 골렘 퍼포먼스는 세계인을 놀라게 했고 환호와 갈채를 받았다. 우리 군이 2008 합평 엑스포의 상징물로 만들기 위해 순금 162kg으로 ‘황금 박쥐 조형물’을 설치한다 하니 반발이 거셌다. 엑스포 때 선을 보이자 각광을 받게 되었고 합평의 대표적인 브랜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여수엑스포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생태계 파괴 등 인류의 현안과제를 해양과 연안의 가치 조명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것이 개최취지이다. 친환경 생태계를 주제로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될 것이다. 여수 엑스포는 광양만권을 물론 전남, 대한민국 서남해안권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2012 여수엑스포를 통해 해양 이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는 도시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지구촌 가족이 여수를 세계 환경 엑스포 개최도시로 오래 기억하길 소망한다. 여수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며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합평군수>

농촌지역 병원 응급실 유지비 지원해야

농촌 시군에는 응급의사가 부족해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 노인과 부녀자가 많은 농촌은 도시보다 오히려 병원 응급실 의사가 필요할데도 아예 응급의사가 단 1명도 근무하지 않는 병원이 부지기수라고 하니 농촌에서 사는 것이 서럽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원인은 진료 수가도 낮고 취업난으로 응급의학을 지원하는 전공의가 부족한데다 기존의 전문의들도 전부 다 대도시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농촌에서는 환자가 발생하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

지 못해 농민들이 긴급상황 시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것이다. 거기다가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다 보니 농촌지역 병원이 노인전문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응급실 유지비가 줄어들어 응급실 운영이 어려워져 있다.

정부가 농촌지역 병원들의 응급실에 한해 의사와 병원 응급실 유지비의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본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지방정책 아닐까. <오미영·목포시 해안동>

기고

안기석



유엔연구기금(UNFPA)의 ‘2008년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이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로 1983년 이후 급격히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4천800만 명에서 2050년 3천400만 명, 2100년 1천만 명, 2300년 6만 명, 2305년 말이면 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평생 살면서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목격할 수도 있다고 한다. 부족한 경제인구를 증원하기 위해 동남아인

너는 번영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임신에서부터 보육까지 셋째아 이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셋째아를 임신한 경우 20주부터 출산 전까지 10만 원의 임신 축하금을 주고, 셋째아 또는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2050년 3천400만 명, 2100년 1천만 명, 2300년 6만 명, 2305년 말이면 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산장려는 국가의 생존전략이다

과 아프리카인, 중국인 등의 유입 급증으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민족, 다문화국가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기 출산율 예측보고서’에 2009년 경제성장률이 1%일 경우 출산율이 0.85명으로 낮아 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IMF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로 예측하고 있어 출산율은 더욱더 떨어질 수 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실제로 올해부터 장기적으로 저출산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는 노인 1명을 부양할 아동수가 18명이었으나 2050년에는 노인 3명당 아동 1명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럴 경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인구구조의 비정상화도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머지않아 국가적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자녀는 행복! 3자

감면해주고, 학원과 어린이집 등 우리 시와 제휴한 800여 개의 참여업체에서 수강료 등을 5~20%를 할인해 주는 아이사랑카드 발급 등을 통해 자녀 양육에 경제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가정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함께 영유아와 임신·출산·수유부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식품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이 출산장려 정책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경제적 문제와 보육 환경 등으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거나 출산을 기피 또는 연기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복지국가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장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언론, 학계, 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출산장려 사회환경 조성에 발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가 사라지도록 방치할 것인지 한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할 것인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광주역시 노인복지과장>

정유사 기름값 횡포... 정부가 직접 관리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기름값이 오르는 걸 보면 정말 울화통이 터진다. 자동차 운전이 필수인 업무이다 보니 기름값 개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월수입의 18~20% 정도까지 차지한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기름값은 그 오른 국제유가가 국내 시장에 반영되기 전부터 즉시 올려서 받는다. 그러면서도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그게 국내시장에 반영될 때까지는 시일이 걸리다며 한참 후내내 내린다.

하지만, 올릴때는 그 시기도 문제지만 올라가는 폭이 리터당 적게는 몇십 원부터 많게는 몇백 원씩 폭락 뛰는데, 내릴 때는 10~20원 정도 깎는다. 그것도 몇 주 혹은 몇 달 후

에나 말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리터당 70원 정도로 불이던 유류세를 빼줬다가 다시 부가했는데, 그렇다면 70원만 올라야 맞지만 요즘 기름값을 보면 150~200원 가까이 올려서 받으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걸 문제삼으면 정유사들은 인건비, 달러화, 각종 수입 환경 등 이런저런 온갖 핑계를 댈다.

기름은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국민의 필수품이다. 아무리 시장원리에 맡긴다 해도 몇 개 정유사들의 담합과 독과점이 때문에 시장원리가 통하지도 않으니 정부가 직접 관리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김규근·광주시 서구 생촌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대표전화 2200-551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시 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홍보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사회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